

남원·순창 광역소각시설 입지 대산면 대곡리로

남원시, 6차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로 최종 선정 인근 5km 내 기상·대기질·약취 등 '주변 영향 없다' 판단

남원시가 순창군과 함께 건립을 추진하는 '광역 소각시설'의 부지가 대산면 대곡리 일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남원시는 전라환경영향평가 전문 용역사가 참여해 6차에 걸친 소각시설입지선정위원회 회의의 결과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산면 대곡리 일원 부지를 광역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최적 입지로 선정된 대산면 대곡리 부지의 인근 5km 내 기상, 대기질(다 이옥신 포함), 위생 및 공중보건, 약취 등에 대한 환경영향 조사와 에어모드를 이용한 전라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각시설로 인해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평가됐으며 이를 토대로 전북지방환경청과 협의도 완료한 상태이다.

시는 추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상세 계획에 따라 부지면적 및 편입 토지조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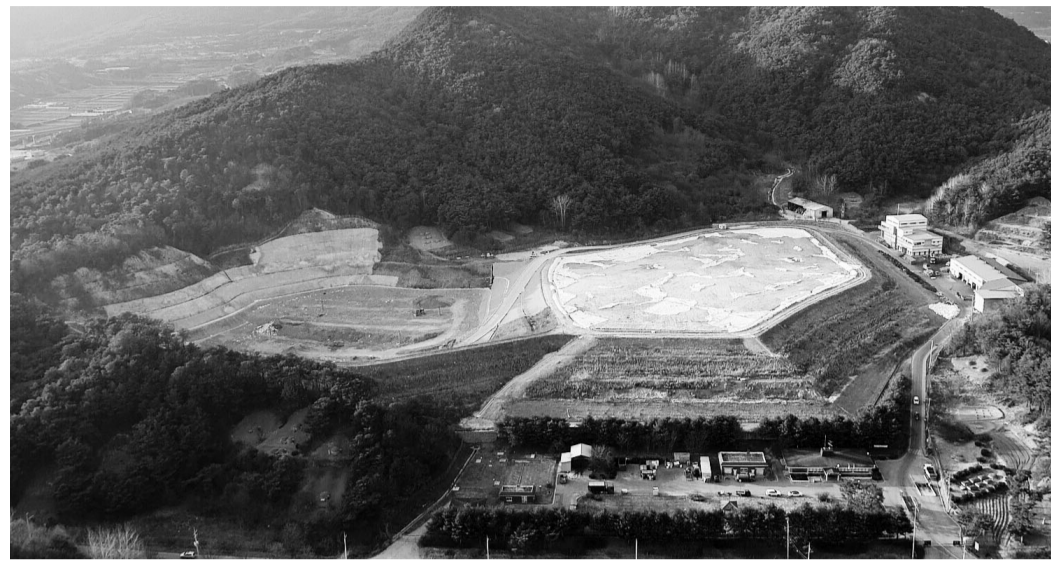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소각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역이 없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사업 추진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던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23개 읍면동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부정책과 이에 따른 소각시설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타 시군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영상을 보여주는 등 소각시설에 대한 긍정적 시민인식 개선에 발 벗고 나선 결과 총 7개소에서 입지 유치 희망을 신청했다.

7개 신청지역 중 위원회와 용역사의 심의 및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입지후보지는 4곳으로 압축된 바 있다.

위원회는 4개소 마을별 순회를 통해 혐오·기피 시설이었던 소각시설에 대한 남비현상을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과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 및 동의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거쳐 최적지를 선정을 완료했다.



남원시가 선정한 '광역 소각시설' 부지.

〈남원시 제공〉

남원시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남원시 생활폐기물 60t, 순창군 생활폐기물 10t, 순환형 매립정비 30t 등 1일 100t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을 오는 2026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예산은 시설공사비 582억원, 부지매입비 100억원, 주민지원사업비 101억원 등 총 783억원이 투입 계획이며 시설공사비의 50%는 국비, 나머지 50% 중에서는 남원시가 70%, 순창군이 30%씩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신규 소각장 설치사업 중 가장 어려운 단계인 입지 결정을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소통·협력을 통해 이뤄냈다"며 "최신의 환경 기술과 최첨단 설비를 도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을 건설하고자 적극적인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개별공시지가 25일까지 열람·의견 접수

1996필지 10월31일 결정·공시

고창군이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 토지는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이 발생한 1996필지로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가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과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 지가와 비교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 스마트케어 추진...치매환자 실종 ZERO 안전 도시 만든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패키지 보급

남원시가 치매환자의 실종이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남원시는 중앙치매센터 통계상 현재 치매 실종자가 1만4000명에 이르며 실종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남원시부터 나서 '실종 ZERO·실종없는 도시 구현'에 도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치매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위치추적 배회감지기' 등 여러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착안, 현재 상

용 중인 배회감지기의 문제점과 지리적·환경적인 요인까지 해결하는 '스마트케어'를 추진한다.

시는 가장 먼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검증된 솔루션(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등 8종)을 패키지로 묶어 지역에 빠르게 보급기로 했다.

효율적 도시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시스템, 사물인터넷(IoT) 인프라를 활용한 안전 서비스 등을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신속하게 위치를 추정할 수 있도록 치매환자 스마트 돌봄 플랫폼과 남원시 폐쇄회로(CC)TV관제센

터의 통합 플랫폼 연동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 지난 4월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 공모'를 통해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융합 배회감지기도 조만간 시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에 1회씩 총진이 필요해 관리가 어려워 독가환자나 노인부부의 작용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도 위성추적장치(GPS) 기능을 활용해 농촌과 산간 지역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국립공원공단이 지난 3일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에서 연 '친환경 숲 속 결혼식'에 참여한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마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영농철 비상근무

11월까지...토요일도 사용 가능

고창군이 추수철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영농철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농한기 동안 주중에만 운영되던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9월부터 토요일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기센터는 본소(고창읍), 서부권(해리), 남부권(대산), 북부권(홍덕)에 4개 사업소 모두 토요일 비상근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비상근무에 농기계 수리요원 및 담당직원 19명이 투입된다.

고창군은 현재 임대농기계 98종 1073대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신청은 2주 전부터 가능하다. 권역별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9월에서 11월까지 토요일 임대서비스에 차질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 농업인이 농기계를 쉽게 예약할 수 있도록 농기계 추가 확보 및 농업인 전문역량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니 농업인의 많은 이용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내장산국립공원,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진행

대일개발그룹 후원 답례품 등 제공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3일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잔디광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취약계층 신혼부부 대상 친환경 숲 속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사회적기업 웨딩업체인 (주)신부넷과 협력해 화분을 사용한 웨딩장식 등 일회용이 없는 친환경 결혼식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또 ESG 경영기업인 대일개발그룹(내장산 CC 운영)의 후원으로 야외결혼식, 답례품, 숙박 등에 식전반에 대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운영수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은 "내장산 사무소는 지난 2018년도부터 총 14건의 결혼식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결혼식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인 만큼 예비부부들이 국립공원 친환경 숲 속 결혼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